

“우리는 폐족(廢族)이다. 폐족이 글을 읽지 않고
몸을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 구실을
하겠느냐. 비록 폐족이라 벼슬은 성인(聖人)이야
되지 못하겠느냐, 문장가가 되지 못하겠느냐?”

-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



정약용·조광조...유배 926명 기록 집대성

‘호남유배인 기초목록’

인물 설명 외 유배 사유·과정 수록
중앙 학문·지역 결합 새 문화 탄생

다산은 정약용(1762~1836)은 1801년 강진으로 유배를 왔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지만 정조 죽음 이후 기해진 천주교 박해와 보수적인 정치 지향으로 유배를 당했다.

죄목은 천주교 신부인 주문묘(周文謫)를 끌어들이고 역모를 꾀했다는 것이다. 당시 장기현(현 포항)에서 강진으로 이배돼 18여 기간 유배생활을 해야 했다. 그의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됐으며 셋째 형 정약중은 사형을 당했다.

비단 정약용 형제뿐 아니라 호남은 역사 이래로 많은 이들의 유배지였다. 개혁정치를 외쳤지만 화순으로 유배를 당한 조광조, 반외세를 외쳤지만 결국 흑산도로 유배된 최익현 등 당대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호남으로 유배를 왔다.

유배는 죄인을 귀향 보내는 것으로 조선시대 오형(五刑)인 사형, 유형(流刑), 도형(徒刑), 장형(杖刑), 태형(笞刑) 중 유형(流刑)에 속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유배인은 오늘날의 전과자인 죄인과는 다르다. 당시에 유배인은 기피를 당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스승이 있는 곳을 찾아 학문을 배우기도 했다.

호남에 유배됐던 인물들을 최초로 망라한 자료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재)지역교류문화재단(이사장 백수인)과 (재)호남지방문화연구원(소장 김대현)은 최근 호남지방 유배인 926명을 집대성한 ‘호남유배인 기초목록’을 발간했다. 책자는 ‘호남기록문화유산 발굴·집대성·콘텐츠화’ 연구사업의 결과물로, 여기에는 유배를 온 인물들의 전체적인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자료집은 인물명, 생몰연도, 유배지, 유배시기, 내용설명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유배인에 대한 설명은 인물에 대한 설명 외에도 유배 사유와 과정이 수록돼 있고 ‘조선왕조실록’의 유배 관련 기록이 언급돼 있다.

책에는 앞서 언급한 정약용, 조광조, 최익현 외에도 윤선도, 정도전, 최산두, 송시열, 노수신, 김광필 등 당대의 인물들의 기록이 담겨 있다. 이들의 유배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출간 책들



지는 강진, 화순, 흑산도 등을 비롯한 호남 각 지역에 분포한다.

그렇다면 왜 호남에 유독 많은 이들이 유배를 왔을까. 섬이 많은 서남해안의 지형이 유형(流刑)을 집행하기에 좋은 조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배를 온 학자들에 의해 유입된 중앙의 학문과 문화는 기존의 섬 지역의 문화와 결합돼 새로운 문화를 꽃피웠다.

알려진 대로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와 ‘다산학단’(茶山學團)으로 일컫는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뿐 아니라 다산 자신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500여권이나 저술했다. 다산을 일컬어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일컫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와 학문 정진을 위해 거처했던 ‘다산초당’.

〈광주일보 자료사진〉

‘호남인물 전기자료 선집2’

김인후·기대승 등 16세기 20명
전기자료 번역...인물 분석 토대

김대현 호남지방문화연구원 소장은 “이 책을 통해 호남지방 유배인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남해유배문화관을 비롯한 지역 전시관, 문학관에서의 전시자료 선정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호남지방문화연구원은 이번에 ‘호남관련인물 전기자료 선집2’를 발간했다. 책에는 김인후, 유희춘, 노수신, 양응정, 백광홍, 박순, 기대승, 정개칭, 고경명, 임제 등 16세기 호남 인물 20명의 행적이 담겨 있다.

자료 순서는 인물의 생몰연도 순이며 인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외에도 전기자료 번역문 등이 실려 있다. 문집에 포함된 전기자료는 인물의 일생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다.

백수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이사장은 “호남의 기록문화를 조사·연구·정리하는 사업은 민족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 집대성하는 사업의 기본 뼈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 온 황석영 “오월 광주시민에 경의”

‘넘어넘어’ 개정판 출판기념회

“여기에 나온 사실은 광주시민의 피눈물에 의한 기록입니다. 광주시민이 없었다면 이런 책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황석영(74·사진) 소설가가 지난 7월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넘어) 개정판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황씨는 “나는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선진화하고 한반도 통일까지 바라보는 정신이 되기를 평생을 걸고 맹세했던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쟁 초심을 잃지 않고 이른바 ‘정치 1번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원칙적인 정치 선택을 한 광주시민을 존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넘어넘어’는 5·18민중항쟁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물로, 출간 당시 ‘지하 베스트셀러’로 불리며 국민 오월의 참상을 알렸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 민주화운동 활동가들도 집필에 참여했지만, 황석영이 초판 대표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항쟁의 역사적, 법적 성격을 재조명한 개정판은 5·18 37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에 출간됐다. 5·18 관련 군(軍) 기록물, 전두환·노태우 재판, 국회 청문회 기록 등을 토대로 내용이 대폭 보강됐



으며, 공수부대 현장 지휘관(대대장급)들의 만행을 실명 비판하는 내용도 실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작가의 자전적 소설 ‘수인’ 광주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책은 황석영의 유년 시절부터 베트남 전쟁 참전, 5·18 민중항쟁, 방북과 망명, 옥살이에 이르는 파란만장한 생애를 담았다.

작가는 2004년 일간지에 연재한 자전적 소설 ‘들판에 서서 마을을 보내’를 대폭 개작해 ‘수인’을 완성했다. 당시 소설은 작가가 ‘장길산’ 집필을 위해 해남으로 내려간 1976년에서 멈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여름밤 달굴 EDM ‘네버랜드를 찾아서’



내일 광산문화예회관 무료 공연

청년예술팀 ‘킹스타운’(사진)의 공연 ‘네버랜드를 찾아서’가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광산문화예회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광산구가 청년예술단체와 광산문화예회관 무대를 나누는 두 번째 공연이다.

킹스타운은 광주에서 공연을 하고 앨범을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렉트로닉 사운드 전문팀이다.

현란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에 춤과 영상을 조합시킨 이번 공연은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광산구 홈페이지 ‘새 소식’란에서 관람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 062-960-8253.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무료 시민연극교실 3기’ 21일까지 모집

희망문화협동조합(이사장 임준형)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연극동아리 ‘연극여행(회장 오주선)’이 공연예술장자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연극교실’ 연극여행 3기를 모집한다.

이번 ‘시민연극교실’은 광주문화재단 시민문화향수지원 단체로 선정된 사업으로 전문연극공연예술가와 교류의 기회와 함께 멋진 무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강사는 제32회 전국연극제에서 대상(대통령

상)을 수상한 연출가 겸 배우 양정인 씨다. 양 연출가는 기본적인 연극이해부터 연극제작의 전 과정을 실기 위주로 강연할 예정이다. 수업시간은 오는 22일부터 9월23일까지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북구 오지2동 희망문화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청년, 일반인, 직장인, 남, 여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1일(오후 6시)까지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수강료 무료. 문의 010-3615-948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농촌 · 어촌 · 산촌 三村에서 만나는 착한 농부

이연복

강레오

매주 금요일 밤 8시 20분

유쾌한 삼촌

착한 농부를 찾아서